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력

전북도, 공모사업 선정 국비 229억원 확보... 73동 녹색건축물로 재탄생 예정

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국비 229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공공건축물 73동(전국 841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2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2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도내 어린이집 18개소, 보건소 51개소, 의료시설 4개소 등 총 73동이 녹색건축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의 에너지 소비절감과 실내공기질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신재생에너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의 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인력의 근무환경개선과,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및 의료시설 55개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과 실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가 시·군간담회와 사업지 발굴 등 선제적 대응과 사전조사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며, 지난해 대비 88억원이 증가된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대학교 등 협력기관과 전라권역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사업 전·후 에너지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 공사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통해 생태건축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8월 13일까지 온라인·현장 접수

전북도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을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2차 신청·접수는 온라인은 '바우처 누리집'에서, 현장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8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 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1차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오는 6월1일부터 14일까지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100만 원 상당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5월 31일에 확정되며, 6월 1일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8월 13일까지 신청된 2차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카

드를 발급받아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 농가가 누락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읍·면·동과 협조해 바우처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지원요건, 증명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공무원 입법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전북도가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도 및 시·군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법제교육은 공무원이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도청 610건, 시·군 2,662건 등 총 3,272건의 자치법규(훈령·예규 포함)를 제·개정했다.

기관별 매월 2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것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제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전북도는 이의신청 기간 및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 등 도민 권익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 권익보

호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올해 법제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한다"면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법제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무에 잘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가 담긴 조례들을 정비하는 등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 출범

도, 4개 반 15명 구성... 수산물 방사능·안전성·품질 위생 검사·원산지단속 등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도 전담팀이 27일 출범했다.

전담팀은 4개 반(총괄반,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단속반, 해양오염감시반)으로 구성됐다.

각각 수산물 방사능·안전성 및 품질 위생 검사, 일본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단속, 해양환경의 방사능 감시 결과 수집 및 안전성 홍보 등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에 대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도 전담팀이 27일 출범했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10건에서 30건으로 늘리고, 유통단계 수산물과 급식 식자재 등 다소비 품목 중점으로 300건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수입 수산물 중점으로 원산지단속도 연간 2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오염수 방류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 및 단속을 점차 확대해 운영하며, 향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시·군,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담팀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담팀을 이끄는 이용선 도 수산

정책과장은 "반별로 장비와 인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단속 빈도와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전담팀을 내실 있게 운영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산단 전기차 제조공장 건립 투자협약

전북도, 이삭모빌리티·라라클래식모빌리티와 체결... 280억원 투자·160여명 신규 고용 창출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이삭모빌리티, (주)라라클래식모빌리티 2개 기업과 새만금산단지에 전기차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운동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김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단지사업단장, 배철환 (주)이삭모빌리티 대표이사, 김주용 (주)라라클래식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이삭모빌리티와 (주)라라클래식모빌리티는 총 280억 원을 투자, 새만금산단 1공구 7

만3,000㎡의 부지에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 스포츠카 등 특수자동차 제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이들 2개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16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기업들과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면서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로서의 새만금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이삭모빌리티(구 (주)이삭자동차)는 캠핑카 및 화물차용 원바디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감소기업으로, 지난 2019년 새만금 산단에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 및 카라반 제조공장을 투자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사업규

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라라클래식모빌리티는 국내에서 아직은 생소한 분야인 클래식 스타일의 1인승 초소형 마이크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새만금에 양산을 위한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국내 보급 및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운동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기차 제조기업 2개 사의 새만금산단 투자를 환영하며, 계획대로 투자가 잘 진행돼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전북도도 큰 불편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만금청, 군산시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포럼’ 유튜브 생방송 개최

전북도와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8일 '2021 전북도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코로나 이후, 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사업방향'을 주제로 코로나 시대 속 비대면 청소년 지원사업 현안

에 대한 기초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내용은 '뉴노멀 시대,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의 전망'을 주제로 한 기초발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노성덕 본부장)에 이어, '코로나 이

후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신아 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사업 및 홍보 우수사례'(오규영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뉴미디어시대, 청소년과 소통하는 온라인 홍보전략'(이태훈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 등으로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